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http://j catholic.or.kr> | E-mail catholic114@hanmail.net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사진 | 강성석 빅토리오(가톨릭사진가회)

화산동성당(2지구)



① 박문수 신부(주임) ② 전 마리피앗(원), 전 아셀라(오른) 수녀(예수성심전교수녀회) ③ 임경구(사목회장) ④ 김종선(사무장) 외 사목회원

입당송 _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_ 예레 33,14-16

화답송 _ 시편 25(24),4-5 7-8,9-10과 14(◎ 1)

-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

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제2독서 _ 1테살 3,12-4,2

복음환호송 _ 시편 85(84),8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_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_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주보 <쇼정이>는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기다림과 만남”



서동욱 비오 신부
(평화동성당)

대림 제1주일은 교회의 전례력으로는 새 해의 첫 날입니다. 교회는 한 해의 시작을 대림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대림 시기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성탄을 넘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기다림입니다. 곧, 대림 시기의 기다림은 전례력으로 4주간 뒤에 기념할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회개와 보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대림 시기 4주간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정 전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기다림의 자세를 제시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세는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나’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거대한 사랑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사랑을 베풀어준 그분을 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하여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몸소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시어 오신 분을 깨어있는 자세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있는 사랑이 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에 지나치게 얽매어 살기보다, 또 근심과 걱정, 죄에 휩싸여 불안하게 살기보다 ‘나’의 삶이 사랑으로 넘쳐흐르길 갈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언제나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하느님의 밝은 빛’, 복자 키아라 루체 바다노



복자 키아라 루체 바다노는 1971년 10월 29일 이탈리아 사셀로에서 태어나 16살에 골수암을 판정받고 2년간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겪다 1990년 10월 7일, 19살 생일을 3주 남겨놓고 꽃다운 나이에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키아라’(밝다), ‘루체’(빛)라는 이름처럼 투병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빛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지 20년 뒤인 2010년 9월 25일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도 원해요.”

키아라는 9세 때 ‘젠’(Gen)이라는 포콜라레 운동에 속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도 원한다.”라는 포콜라레 정신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투병 중에서도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키아라가 골수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날, 그녀는 손으로 두 눈을 가린 채 잠시 방에서 25분 정도 침묵의 시간을 보낸 뒤, 어머니에게 다가가 환한 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도 원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랑

키아라는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으로 여겼습니다. 항암치료가 실패했음에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일 다시 걸을 수 있는 것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택할 거예요.” 그녀는 고통 중에서도 모르핀 마저 거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핀은 정신을 흐려지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저의 고통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녀



장우용 다니엘 신부
(교구 청소년교육국)

의 일기 내용도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순간을 잘 산다면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므로 고통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로 바친다면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했던 말도 같았습니다. “밤은 끔찍하지만 나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선물했어.”

“안녕 엄마. 나는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해야 해”

키아라는 투병 중에도 빛나고 환한 미소를 절대 잃지 않았고 그녀를 위로하고자 찾아갔던 이들은 오히려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되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자 키아라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천국으로 갈 거야.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안녕 엄마. 나는 행복하니까 엄마도 행복해야 해.”

복자 키아라 루체 바다노(1971-1999, 축일 10월 29일)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아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 제 장례식에서 저는 사람들이 울기를 원치 않아요. 마음을 다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복자 키아라 루체 바다노, 그녀의 삶은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방향임을 빛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4050 음악 기도를 소개합니다!



교구 가정사목국(국장=이원재 신부)은 4050대 엄마아빠와 4050대 교우를 위한 음악기도 모임을 10월부터 시작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30대 청년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또는 이미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더 이상 청년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4050대 엄마아빠들, 또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장을 열자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원재 신부는 피정 대상을 4050대 교우로 잡은 까닭을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이어가느라 정신

이 없는, 그리고 미혼이지만 더 이상 청년 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이이거나 60대 선배들과 함께 활동하기 부담스러운 40·50대 교우들이 한 달에 한 차례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12월에는 13일(금) 저녁 8시부터 음악을 통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구청 유행검관 4층에서 열리니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025년 일정은 교구 가정사목국에 문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본당으로 공문과 포스터가 발송될 예정이다. 교회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50대 교우들이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이 받은 신앙의 소중함과 더불어 자녀들에게도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이미원(교구 기자단) |

문의 : 063)285-1031(교구 가정사목국)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쉽고 제주 여행 연말연시(한라산산행) 12.29~1.1
1.11~13 / 1.16~18 / 1.20~22 / 1.24~26
02-773-1455 / 064-796-4182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생태/성지순례 연말연시(한라산산행) 12.30~1.2
1.17~19/1.23~25/2.8~10/2.14~16/2.22~24
02-773-1463 / 064-756-6009

온누리 바른척추&통증관리

목·어깨·팔·허리·다리
척추 골반 통증 및 체형 관리
최민준 시몬 010-3684-5544
효자동 신기독병원 맞은편

성바오로복지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면회 가능)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063)249-3300~3302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희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신시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몽 헤 알(브런치카페)

커피, 맥주, 와인, 파스타, 피자, 리조토
황현(토마스) 김진민(아가타)
익산시 선화로1길 58-41(서부보훈지청 옆)
☎ 063)854-2488

황선주 손해사정사무소

교통사고 보상 상담
소장/황선주(프란치스코)
232-4985, 010-3659-4985
기린로 한솔빌딩 5층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2/12 3대성모님발원지12일 495만원
2/19 KE초특가 이태리일주9일 419만원
2/24, 3/3 터키,그리스11일초특가385만원
유재구 요한 02)778-8565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덕진구 송천동 1가(송천우체국 옆)
255-6200, 010-9453-3547, F255-6202
양도세·상속증여세·기장대리·세무조정 상담

2025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

교구는 11월 20일(수) 2025년도 사목교서 연수를 중앙 주교좌성당에서 실시했다.

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2024년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을 목표로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증진했다.” 라면서 2025년에는 ‘생명에 봉사하는 가정’에 역점을 두어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새로운 가정 복음화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랑은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고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낳고 생명은 사랑의 열매이자 완성이고, 죽음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게 드리워져 있고, 물질만능주의는 인간 본질적인 가치 곧 정신적, 윤리적, 신앙적 가치를 경시할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 풍조와 사회의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생명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 오석준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생명을 위한 돌봄’라는 생명특강과 유광용 회장(평신도단체협의회)이 ‘평신도 모범상’의 제정을 발표하고, 이원재 신부(교구 가정사목국)의 가정사목국에서 사목실천을 위해 2025년에 실시하는 행사를 소개로 마무리되었다.

| 노태영(교구 기자단) |



Photo 소식

▽ 전가대연 어울제

11월 16일(토)~17일(주일) <사진: 교구 청소년교육국 제공>



▽ 인보성체수도회 설립기념 종신서원 미사

11월 18일(월) <사진: 수도회 제공>



▽ 가톨릭사진가회 제17회 정기전시회 개전식

11월 22일(금) <사진: 김창식(가톨릭사진가회)>



▽ 아중성당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

11월 24일(주일) <사진: 본당 제공>



- **재무평의회**
12월 4일(수) 오후 4시 30분 교구청
- **참사회**
12월 5일(목) 오전 10시 교구청
- **성가복지회 하반기 이사회**
12월 5일(목) 오후 3시 교구청

이번 주 교구 행사

- **12월 2일(월)**
-교정사목 군산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축동)
-사랑의 다리 1~4지구 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가정사목국 후원회 미사
(오전 11시 자비의 성전)
- **12월 3일(화)**
-익산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부송동)
-제2차 은빛여정 피정(~4일, 평화의 전당)
-우리농 활동가의 날 및 송년미사
(오전 10시 유항검관)
- **12월 5일(목)**
-생태환경위원회 월례회의
(오후 2시 교구청)
- **12월 6일(금)**
-사무장원연합회
(오후 5시 30분 교구청)
-가정사목 후원회 밤
(오후 7시 30분 평화의 전당)
- **12월 7일(토)**
-상담심리학회 피정(~8일, 평화의 전당)
-본당 사제양성분과장 및 후원회장 연수
(오후 2시 교구청)
-혼인강좌(오전 9시 40분 평화의 전당)
-전주교구 레지오 도입 70주년
준비위원회회의
(오후 1시, 평화의 전당)

- **교구 서품 사정회**
12월 6일(금) 오후 3시 교구청
- **첫 순교자 기념일 미사**
12월 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전동

- **12월 8일(주일)**
-에비신학생 월모임
(오후 1시 30분 교구청)

교구 내 알림

- **성모양로원 입소 어르신 모집**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문의 : 063)453-8400
홈페이지 : www.smo8400.net
- **전주교구 말씀.치유의 기도회**
일시 : 매주 금 저녁 7시~11시 30분
장소 : 치명자산성지입구 자비의성전
주최·주관 : 전주교구 성령새신봉사회
- **성모기사회 성모신심미사**
12월 7일(토) 오전 9시 20분 효자동
오후 7시-젊은이들을 위한 신심미사
문의 : 010-8627-5742
- **가난한이들의작은자매회 사랑의 손 모임**
12월 8일(주일) 성요셉동산양로원
대상 : 15세~35세 그리스도인으로
문의 : 010-3055-1441/010-8748-1442

교구청 전산 직원 모집

1. 자격조건
가.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천주교 신자
나. 전산전공자(대졸 이상)
다. 선발 시 우대 사항(SQL C# 가능자, 프로그램 개발
경험자, 전산 업무 경력자, 만 50세 미만인 자)
2.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증사본,
(http://www.jcatholic.or.kr 에 게시된 양식 사용)
3. 제출기한 : 2024. 12. 16.(월) 17:00까지
4. 제출방법 : 이메일: jjmst@j1004.net
우편/인편 :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무처 ☎230-1068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 참고 : 제출된 서류는 폐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주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가톨릭순교현양원
월간 소식지
매달 말일 발행합니다



교구 밖 알림

-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비블리오드라마(성경드라마) 피정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구약성경 아카데미-탈출기·신명기 해설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 **작은형제회 이탈리아 순례 모집**
78차 : 3/19~3/31, 550만원
79차 : 6/10~6/22, 550만원
이탈리아 로마, 아씨시 외 프란치스코성지
문의 : 010-9704-9495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
매주(금) 밤 9시~(토) 새벽 03시
강사 : 전국 유명강사
문의 : 043)213-9103/010-5482-6744
셔틀버스 :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저녁 19:00 출발
고속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저녁 19:20 출발

교구청 가정사목국 직원 모집

1. 자격조건
가.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천주교 신자
나. 회계 업무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
다. 주말 근무 가능자/ 라.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마. 가정, 상담 관련 전공자 우대
2.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자격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
(http://www.jcatholic.or.kr 에 게시된 양식 사용)
3. 제출기한 : 2024. 12. 16.(월) 17:00까지
4. 제출방법 : 이메일: jjmst@j1004.net
우편/인편 :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무처 ☎230-1068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 참고 : 제출된 서류는 폐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도 그대의 노래가

故유진영 신부님 22주기 추모미사



'아름다운 사제들'에서 '테오 그라시아스'에 이르기까지
저희 사제들의 감사와 찬미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유진영 바오로 신부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후배 사제들은 바오로 신부님의 영혼을 기리고
그분의 삶을 다시금 기억하고자 추모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4년 12월 6일

시간: 저녁 7시 30분

장소: 전주교 전주교구 우전성당

주관: 전주교구 사제종향단 테오 그라시아스